

텔레비전 드라마의 갈등 표출과 이데올로기적 의미

—드라마 「아줌마」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백선기/김승희

1. 서론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매스 미디어는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문화적 규범을 전파하며 우리 삶의 방식이나 행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전파되는 규범과 가치들을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이를 수용하고 기존 제도나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와 통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매스 미디어 중에서도 텔레비전은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관습 등 행동 모방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이다. 또한 드라마는 현실의 허구적 재연을 통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체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 질서를 조직,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남녀의 사회적 모습들이 특정한 양식으로 묘사되거나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여성 등장인물들의 경우, 주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보다는 대개 누구의 부인, 애인, 어머니, 며느리, 딸 등으

로 소극적이며 종속적인 모습으로, 회생적인 현모양처가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묘사되곤 하였다. 또한 똑똑한 고학력의 여성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며,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며, 철부지고, 대개는 부잣집 외동딸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여성에 대한 편견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고학력의 능력 있는 여성은 부담스럽고 쉽게 지배하기 힘든 존재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에 재연된 상황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성 차별적인 '성 역할 이데올로기'와 남아 선호 사상, 남성 우월주의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 이데올로기,' 그리고 학력 차별주의, 능력주의 등의 '성공 이데올로기'를 생산, 유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텔레비전 드라마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와 신화를 재생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 체계를 내재, 유포하는 대표적인 장르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 진출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도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제반 사회적 갈등들을 표출했으며,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가 교차된 드라마를 선정하여, 그 드라마 속에 표출된 각종 사회적 갈등들과 그러한 갈등들에 내재된 이데올로기 투쟁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I. 드라마의 사회적 의미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대는 수돗물 사용량과 술집 매상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텔레비전이라는 대중 매체는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층을 비롯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오늘날은 어느 집이나 텔레비전 수상기를 한 대 이상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달 효과는 막강하다. 더욱이 학력, 나이, 성별, 직업, 지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집 안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메시지가 반복적이고, 누적적이며,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텔레비전 영상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상 세계와의 친근함'이다. 이러한 일상성과 친근함을 무기로 한 텔레비전은 불특정 다수와 광범위한 지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별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¹⁾

어두운 공간에서 몰입하게 하는 영화와는 달리 환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상성'을 통해 시청자와 공존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텔레비전은 영화와는 달리 시청자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또는 시청자가 속한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진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현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다양한 의미와 즐거움을 경험하며,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에게 의미있는 현실을 구성한다.²⁾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드라마는 우리 주위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우리를 '일상성의 친숙함'으로 빠뜨린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와 동시적인 시간 속에 살아 움직이므로 그들이 엮어가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우리는 몰입하게 된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는 다양한 인물들과 배경들을 근간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 이런 현실감과 친숙감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를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며, 그 세계로 들어가 텔레비전 드라마의 의미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

1)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나남, 1994, pp. 24~25.

2) 백선기,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 출판부, 1997; 『한국 선거 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언론 보도와 신화적 인식』,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등 참조.

아들이게 된다.

이와 같이 텔레비전은 기본적으로 일상성, 현실성, 시청자와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드라마의 의미는 사회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 과정을 거쳐 인공적으로 구축된 텍스트로 친숙한 형태로 의미를 자연화한 일련의 조작된 작업인 것이다. 이렇듯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고 현실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허구의 세계를 현실처럼 재연하면서, 자연화된 드라마는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자연화된 친숙한 코드의 일상성이 강조된 텔레비전 영상의 특성을 반영하게 되며,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드라마 장르 역시 이런 텔레비전 영상이 지닌 일상성의 특징을 공유하게 한다.

피스크 Fiske와 하틀리 Hartley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자연화한다”고 말했다.³⁾ 이는 텔레비전이 외부 세계 또는 현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형상화해주며, 또 그 형상을 현실과 동일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텔레비전의 여러 장르 중에서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주된 이미지는 일상성에 대한 묘사로 나타난다. 시간과 장소, 배경을 변화시키는 변형성을 지니지만 남녀 간의 진부한 사랑 이야기, 가족 구성원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주변적이고 사소한 사건들로 인해 울고 웃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정형화된 하나의 의미 구조를 내포한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거의 모든 이미지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여성화’ 전략이라는 점을 주목할 때, 텔레비전 드라마에 의해 제시되는 상징적 현실은 탈중심화된 개인적 영역으로 여겨지는 결혼, 사랑, 그리고 성에

3) 강태완·김선만 역(존 피스크), 『문화 커뮤니케이션론』, 한뜻, 1997, p. 50.

대한 인식과 실천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모린은 “이 같은 텔레비전 이미지의 여성화 전략이 대중 소비 사회를 주도하는 자본의 보편화된 전략과 맥을 같이함으로써 가족 중심의 소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인간의 주체를 구성하는 지배적 전략이 경제적이고 강압적인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과 일상적인 것들 속에 편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II. 드라마의 서사 구조

텔레비전 드라마는 기호 체계로 이루어진 미디어의 생산물이란 점에서 수용자에게 일정한 문화적 가치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끊임없이 일상 생활의 영역에 대한 문화적 표상을 제공하고 상징화하는데, 이런 문화적 표상의 기저에는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는 특정 신화 내지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⁵⁾

텔레비전 드라마를 기호 구조로 이루어진 텍스트로 전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각은 구조주의의 기호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텍스트로서 텔레비전 드라마가 지니는 대표적인 특성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하나의 기호적 서사 구조라는 점이다.⁶⁾ 텍스트는 하나의 개별적인 작품이나 작가적 실천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미화 작용이 얹혀 있는 교차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서사적 코드와 영상 언어적 코드가 결합해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사건과 존재물이라는 두 개의 요소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사건은 행위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사건 이외에 존재해 있었던 존재물들은 인물과 배경이다. 이들 사건과 존재물(인물, 배

4) 정진국, 「미학에서 본 TV 이미지」, 『영상 포럼』 제1호, 1990, p. 13.

5) 이지영, 「TV 드라마의 분석적 비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pp. 21~22.

6) 위의 논문, p. 25.

경)은 이야기를 이루는 주요 요소들로서 이야기의 의미를 이루어낸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 구조는 크게 플롯과 서술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플롯은 이야기의 더 이상 나누지 않는 내용이고, 서술은 그 내용이 관련된 방식이다.⁷⁾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 구조적 특성은 갈등과 해소의 전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드라마의 서사 구조는 드라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고,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 및 해결을 설명하며, 드라마에서 전개되는 현상을 자연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사 구조는 텔레비전이 사회적 긴장과 모순을 처리하는 기제(메커니즘)로서, 줄거리 전개와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인 논리가 스며들어 있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 구조 분석을 통해 드라마 내에서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는지를 밝히게 되면, 드라마가 지닌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밝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I. 드라마의 갈등 구조

드라마에서 갈등이란 중심 인물과 반대 세력 사이에 형성되는 대립이나 힘의 충돌로서, 등장인물의 행동을 형상화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⁸⁾ 드라마의 서사 구조는 등장인물의 갈등 요인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른바,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플롯의 핵심이 된다. 등장인물이 표현하는 피상적인 표면을 파헤치면 추상적인 지배적 가치의 구현으로서, 사회적 갈등의 수행자로서 등장인물의 갈등을 볼 수 있다.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이 지닌 대립 구조가 의미있는 것은 이 구조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해결되느냐에 따라 드라마가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갈등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에 나타나는 갈등은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사회 사이 등의 갈

7) 신현숙, 『희곡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1990, pp. 22~23.

8) 위의 책, p. 27.

등 구조로 이뤄진다.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은 부부·가족·남녀·사회 갈등으로 나타난다. 첫째, 부부 갈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부정·불륜 등으로 집약되며, 대부분 가정의 보전과 유지로 갈등이 해결된다. 둘째, 가족 갈등은 부모와 자식 간 부양 문제, 고부 갈등, 올케와 시누이의 갈등, 배우자의 상대적 조건 및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여성 간의 갈등과 배우자의 외적 조건으로 인한 갈등이 주를 이룬다. 셋째, 남녀 갈등은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 능력의 차이, 외적 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대개 남성이 여성의 조건과 배경보다는 우월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사회 갈등은 사회 구조적 제도와 개인적 삶과의 갈등으로, 사회 제도가 우리의 삶을 구속함에 따라 비롯된다.⁹⁾

이와 같이, 갈등 구조를 찾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그 이야기 구조 내에서 다른 의미들과 대립되는 관계 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립적 구조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해결되는 방식에 주목할 때 우리는 텍스트에 내재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밝혀낼 수 있다.

IV. 드라마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1) 성 역할 이데올로기

남성은 사회 활동을 전담하고 여성이 가사 노동을 맡으며, 가족 내에서는 남성인 아버지가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는 것을 가부장제라고 한다. 성에 따라 역할이 다르게 부여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기대가 달라진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내지 허위 의식이 가부장 제도를 통해 재생산되어왔다. 특히 성 역할은 성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열등한 존재로서의 여성의 개념이 남성 중심적 지배 문화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유포된다. 이는 여성

9) 윤석호, 「TV 드라마에 나타난 갈등 유형 분석」,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pp. 56~57.

에 대한 남성의 지배적 위치와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가부장제의 전통에서 가장 중심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가부장이라는 개념은 동양의 음양 사상에서 비롯되어, 남성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데 반해, 여성은 수동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라는 개념을 수반하게 된다.¹⁰⁾

특히, 결혼을 통해 가부장적 권한을 부여받은 가장으로서의 남성은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며, 강인하고 성취 지향적이며, 이성적이고 조직적이며, 현실적이다. 이에 반해, 여성은 수동적이고 섬세하며, 나약하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으로 풍부하여 가족을 위해 봉사한다. 이런 특성으로 사회활동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적합한 존재이며 여성은 육아, 가사 노동의 집안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성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성 역할 분담의 고정관념은 여성은 어릴 적부터 주변부적인 역할과 낮은 지위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강하게 주입된다. 여성은 스스로 자존심을 억제하고 자아 의식을 통제하며 항상 적은 것에 만족하는 습성을 지니도록 교화되는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은 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적고, 비중심적 역할을 한다. 둘째, 결혼의 유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남성에 비해 중요하다. 셋째, 결혼 생활은 고정적인 남녀 사이의 성 역할 분담을 기정 사실화한다. 넷째,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 여성 직종이라고 알려진 직업에 종사하며, 지위도 낮고 권력도 없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그려진다. 다섯째,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사적으로 활동하며 전문성도 약하게 묘사된다. 여섯째, 여성은 남성보다 수동적으로 그려진다. 일곱째, 여성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¹¹⁾

10) 김승현 외, 『현대의 사회과학』, 전영사, 1994, p. 372.

11) 백선기 역, 『문화 연구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백선기 역, 『대중 문화와 문화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9; 백선기 역, 앞의 책, 1994 참조.

이는 결국 텔레비전 드라마가 여성에 대한 묘사에 있어 기준의 통념, 이른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은 항상 남성의 부가적인 존재나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의 지배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반영하며 더욱 여성의 역할을 고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2) 성, 사랑, 결혼 이데올로기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과 사랑은 남성 지배 문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성과 사랑으로 맷어지는 남녀 관계에는 남성 주도적인 사회 관계와 성별 문화의 특성이 그대로 투영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성과 사랑의 문화에는 성 불평등의 모순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들이 내포되어 있다. 성과 사랑의 가부장적 요소들을 미화하고, 성과 사랑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 문화가 재생산되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념들이 존재해온 것이다.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성과 사랑을 통한 여성의 억압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위장하고 여성을 이에 순응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여성에게는 이런 성과 사랑이 억압이 아닌 낭만으로 착각하는 허위 의식을 갖게 한다.

페미니스트들은 낭만적 사랑이 여성의 더 옥 억압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즉 일생에 오직 한 번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는 낭만적 신화는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도록 하고, 오직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믿음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또한 사랑을 통한 결혼은 신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결혼에 대한 생각들과 역사·국가·가족이라는 프레임(틀)을 절대화하는 이데올로기는 은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들이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억압하게 된다.

가부장적 사회 문화 구조가 재생산되는 것을 합리화하는 대표적인 이념이 바로 결혼 이데올로기이다. 결혼 이데올로기는 독특한 형태로 존재한

다. 이것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주체를 만들지 않는다. 반대로 결혼 이데올로기는 결혼에 동조하게 하고 결혼에 자율적인 형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특히 결혼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주체를 변화시켜 결혼에 대한 환상과 실제 적용 과정을 통해 더욱더 뒤틀리게 만든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이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한다.

결혼을 다양한 삶의 방식 중에서 선택 가능한 하나가 아닌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획일적인 삶의 방식이다. 결혼은 그 자체로 정상적이며 한번 결혼하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결국, 결혼이 유지되고 있으면 정상적이라고 보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사회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3) 전문 직종(교수직) 이데올로기

텔레비전에서 묘사되는 직업들이 과장 또는 축소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직업에 대한 과장된 묘사는 왜곡이 아니라 그런 지위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내리는 평가에 관한 정확한 상징적인 묘사이기도 하다.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의 개인적 성향을 직종별로 보면 전문 직종의 종사자는 대개 야심이 있고, 민감하며, 지성적이고, 낭만적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논리적으로 그려지고, 나아가 교양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현명하며, 합리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권력욕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전문 직종의 종사자는 야심이 없고, 덜 민감하며, 비지성적이고, 현실적이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비논리적이고, 교양이 없으며, 자신감도 부족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또한 덜 개인주의적이고, 권력이 없으며, 현명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전문직 종사자가 비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이미지를 비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 드라마에서는 긍정적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처럼, 드라마에서 전반적으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성격과 직종 자체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고정관념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런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험의 없거나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수용자층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특정 직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문 직종의 하나인 교수 사회는 학문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명석함을 지니고 있다고 묘사되는 반면, 비현실적이고, 딱딱하며, 원칙적이고, 이기적이며, 권위적이고, 현실적 사회 적용에서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수 직종에 관한 고정관념화는 우리 사회에 교수들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전파하고, 사회에 내재된 교수들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확산하게 된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I.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MBC 방송국에서 방영되어 우리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드라마 「아줌마」를 선정하여 그 속에 나타난 갈등 구조와 그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부부·친족·연인·계층 간의 갈등 표출을 중심으로 하여, 갈등 사이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갈등이나 그로 인한 투쟁적 의미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기존 신화와의 공통점과 차별성을

통한 사회적 의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 연구 문제 1. 드라마 「아줌마」에 나타난 부부 · 친족 · 연인 · 계층 간의 갈등 표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무엇인가?
- 연구 문제 2. 드라마 「아줌마」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 2-1. 드라마 「아줌마」에 나타난 부부, 성 역할, 교수 사회에 대한 신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 2-2. 드라마 「아줌마」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와 기존 신화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연구 문제 3. 드라마 「아줌마」에서 드러나는 차별적 의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축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방영 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현실적인 구성으로 시청률이 30% 전후로 많은 사회적 담론의 장이 되었던 드라마 「아줌마」에 표출된 갈등 관계와 해결 구도에서 나타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으로는 드라마 「아줌마」의 총 54회(2000. 9. 18~2001. 3.

20) 분을 선정하였다.

2) 분석 방법

연구 문제 1, 연구 문제 2 및 연구 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 방법은 기호학적 분석 방법들(계열체 분석, 통합체 분석, 신화 분석 등)을 채택하

였다.

드라마 「아줌마」에 나타난 서사 구조를 통하여, 드라마 「아줌마」가 지니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와 그에 따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단계적 의미 구조와 기존 신화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드라마 「아줌마」가 지닌 사회적 의미와 변화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화와 이데올로기 분석을 통하여, 드라마 「아줌마」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¹²⁾

I. 드라마 「아줌마」에 대한 통합체 분석

1) 드라마의 서사 구조

남편이 하늘이라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의 첫사랑 여인의 등장과 더불어 순수하고 깨끗한 학자로 생각했던 남편의 이중성을 알아가면서 지금껏 쌓여 있던 가족, 부부 간의 갈등을 통해 이혼을 한다. 그후 주체성을 찾은 아내는 홀로 서기에 성공하는 반면 지식인의 이중성을 대표하는 남편은 몰락하는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갖는다. 또한 이를 부부를 중심으로 얹힌 등장인물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들에 대한 해결 구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2) 지면 관계로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만 제시하고, 신화적 분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화적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 아내는 식당 성업, 남편은 공부방 운영

2) 등장인물 간의 관계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 간의 긴장과 갈등 관계가 이야기의 축이 된다. 드라마 「아줌마」에 나타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내와 남편은 이혼 후 각자의 독립된 삶을 산다. 남편과 애인의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고(적대적 관계) 애인은 남편의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다. 아내와 남편의 애인은 서로 친구 관계가 되며, 아내의 학문적 동지로 시작되었던 남자 친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남편의 부모는 자식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부부 중심의 노년을 맞으며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드라마 「아줌마」에서는 독특한 인물 간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 아내가 남편의 애인과 적대적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변하는 것은 기존의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여성 간의 대립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부각되는 것이다. 나이가 종속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의 새로운 부부 관계 모습을 통해 탈가부장적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

3) 드라마의 갈등 구조

(1) 부부간의 갈등 구조

부부간의 관계에서 성격, 학력, 성(불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 차이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변화된 부부상과 성 역할의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① 오삼숙 대 장진구 부부

하룻밤의 성 관계로 임신한 여인(아내)과 주위 상황에 의한 반강제적의 무감으로 출발한 이들 부부는 사랑을 통한 결합이 아니었기에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되었다. 자신보다 낮은 학력과 사랑보단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부장적 권위 의식이 뿐리 깊은 대학 강사인 남편은, 아내란 복종과 순종으로 집안을 꾸려가는 가정부쯤으로 생각했다. 그렇기에 이들 부부간엔 깊이 있는 대화보단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와 서로의 이해 부족으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인다.

권위적인 남편은 아내 앞에서는 항상 허위 의식으로 무장된 이중성을

	부부 관계	학력	성(불륜)	가족
남편의 인식	주종적 관계,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 요구	박사, 고졸인 부인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 자신보다 학력이 낮은 부인 일방적인 무시	부인 이외의 여인과 사랑할 수 있다(아내는 의무, 사랑 결여, 아내 불륜은 용납 안됨). 정신적 외도는 불륜이 아님	자식 중심(임신의 책임으로 결혼), 가족 간의 위계 질서(가부장적 질서 유지 옹호), 엄마에 대한 의존도 높음(마마보이 기질), 가정 중시
아내의 인식	주종적, 평등 관계(이혼 후), 아내의 남편에 대한 우월적 지위	고졸, 남편의 고학력에 주눅 들, 남편의 이중성을 파악한 후 당당해짐	부부 관계 이외는 불륜(외도는 용납 안됨). 책임감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	자식 중심, 가족에 대한 회생 정신 강함, (이혼 후) 주체적 삶 추구, 호주제 요구

드러낸다.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가 없이 의무감으로 출발한 이들 부부가 아내의 일방적인 회생과 인내로 이끌고 온 15년 간의 부부 관계에서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남편의 교수 임용의 비리와 첫사랑 여인과의 만남에 의해 폭발하게 된다. 더 이상의 회생과 인내를 포기한 아내는 이혼을 통해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자로 거듭나게 된다.

처음부터 내재되었던 서로 간의 성격·학력 차, 성(사랑, 불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등이 오랜 세월 축적되면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절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당당한 주체성을 갖게 된 아내는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과 위자료를 받고 친구들과 식당을 개업하여 성공적인 홀로 서기를 한다. 이외는 반대로 남편은 번번이 계속되는 거짓된 위선으로 결국 홀로 서기에 실패하고 돈으로 산 교수직도 잃게 된다.

순종적이고 맹목적인 가족에 대한 회생과 사랑을 강요받아왔던 여성들에게 자아를 가진 '주체성'이란 옷을 입혀 당당한 삶을 살 것을 드라마 「아줌마」는 보여준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남편 의존에서 탈피한 주체성을 가

진 아줌마가 이 시대의 진정한 아줌마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의 ‘학력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의 원인이 사회 제도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학력 차별주의, 일류 주의가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가 변하였음에도 여전히 아내에게 전통적인 순종적 미덕을 가진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남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도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며 힘든 부분은 아내의 몫으로 돌리는 남성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크게 부각되기도 한다.

또한 이 부부를 통해 주종적이고 종속적인 전통적 부부 관계의 탈피를 느낄 수 있다. 주종적 부부 관계가 평등적이고 역전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은 여성의 자아 의식 확보를 통한 주체성의 회복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사회 변화와 여성의 자아 개념의 확립으로 앞으로는 전통적인 주종 관계로서의 부부 관계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② 오일권 대 최유미 부부

	부부 관계	학력차	성(사랑, 불륜)	가족
오일권	부부는 동반자적 관계	박사 출신, 대학 교수	부부 이외의 사랑 가능(제자와의 외도), 이혼은 불가	부부 중심, 부모 보단 자식이 우선
최유미	남편의 사회적 지위는 아내의 지위, 동반자적 관계	대학	부부 이외의 사랑은 불륜, 남편의 외도에 같이 대응함. 이혼은 불가	부부 중심, 부모 보단 자식이 우선 (부모에겐 의무적 행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안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한 어머니와 여동생의 회생으로 성공하였고, 한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성장한 ‘성공 지향적’인 교수 남편과, 좋은 집안에서 고등 교육까지 받은 교양 있고

재치 있는 아내의 부부 관계의 모습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습이다. 이들 부부에게 있어 결혼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이에 아내는 남편의 의도를 알고도 자신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남편의 능력과 지위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지속적인 가정 생활을 꾸려간다. 사회적 지도층이며 고학력의 엘리트인 유미는 곁으로는 남녀 평등을 말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오히려 삼숙보다 더 독립적이지 못한 종속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엘리트층을 대표하는 오일권과 최유미 부부를 통해서 서로의 영역을 중시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들을 볼 수 있다. 부부간의 사랑보다는 서로의 목적과 이상을 추구하는 도구적 관계가 돋보인다 하겠다.

고학력의 부부 관계에서 부인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권위만을 내세우는 남편이 아닌 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 학벌이 비슷한 부인에겐 함부로 가장의 권위를 휘두르지 않는 남성들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불륜은 인정하지만 아내의 불륜은 용납 못 하는 남성의 이중성 또한 뚜렷이 보여준다.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불법적 주가 조작으로 모든 것을 잊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남편과 도도하기만 하던 아내가 생활을 위해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하며, 무시했던 시누이(삼숙)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만 거절당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의 전통적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 부부를 통해 위선적인 이중적 부부상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조건과 배경을 중시하는 결혼 풍습의 씹쓸한 단면도 제시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경제적 도구로서 사랑보다는 조건을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병폐적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③ 장기백 대 신옥자 부부

	부부 관계	학력	성(사랑, 불륜)	가족
남편의 인식	권위적(레임덕)	대출	부부의 사랑은 책 임감	자식 중심, 가부 장적 권위 내세움
아내의 인식	남편의 경제력 상 실 후 은근히 무 시, 남편에게 대 체로 순응적		부부는 사랑을 바 탕으로 해야 함	남편보단 자식이 우선

가장인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으며 자식을 사회적 으로 성공시켜야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며, 은퇴 후 가장으로서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경제력을 잃은 자신에 대한 자식들의 태도와 아내의 은근한 무시로 레임덕에 빠진 전통적인 가부장의 모습과, 변화된 가족에서의 가장의 지위와 역할이 혼재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부부 관계에서 자식을 통한 가계 계승이 중요한 역할임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인 부부상이 그렇듯 자식 중심의 주종적 부부 관계가 가져다 주는 허무함을 통해서 비로소 가족의 중심은 부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식 보다는 서로의 존재 가치를 깨달으며, 자식 중심에서 부부 중심의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 즉 앞으로 변모할 부부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적 권위가 가장의 경제력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자식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부부가 주체가 되어 노후 생활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제시해주고 있다.

④ 강수완 대 장아영 부부

신세대 부부상을 통해 계약 결혼, 동거 등의 변화된 결혼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로 남성과 동등한 교육 수준으로 인한 사회 전문 분야의 진출로, 더 이상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

	부부 관계	학력	성(사랑, 불륜)	가족
남편의 인식	동반자(서로의 영역을 중시, 가사 분담)	박사	결혼 전의 혼전 관계 가능, 결혼 후의 부부 이외의 관계는 불륜 — 이혼의 원인이 됨	부부가 중심, 부모나 형제보다는 자신들의 삶이 중요함, 자식 중요
아내의 인식	동반자(남편도 가사 분담해야 함)	대출	결혼 전 남편 이외의 혼전 관계 가능, 동거 후 결혼 찬성(계약 결혼), 결혼 이후엔 불륜 — 이혼의 원인이 됨	부부 중심, 자식 중요

고 협조적인 아내로서 비교적 평등한 부부 관계를 보여준다. 가사에 있어서도 여성의 전적인 역할 수행이 아닌 남편의 가사 분담과 육아 분담이 일 반화되어 있다. 이런 점은 전통적 부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신세대적 부부상이다. 또한 순결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졌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결혼 전의 이성과의 혼전 관계에서도 남녀가 서로 대등한 견해를 갖는 점 등은 사회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신세대 부부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중시하며 분담과 협조를 통해 동반자적인 부부 관계로 폭을 넓혀가고 있다.

경济력과 학력이 대등한 이들 부부에서는 가부장적 권위를 무작정 내세우는 남성을 볼 수 없다. 이는 여성의 학력과 능력이 부부의 역학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한지원 대 박재하 부부

대학 시절부터 첫사랑인 여인 한지원을 끝까지 기다리며 구애를 펼쳐 결혼을 하게 된다. 지원은 혼전 관계로 인한 임신으로 확실한 사람이 없는 재하와의 결혼을 망설이나, 미혼모가 되는 두려움과 자식의 장래를 위해 재하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재하와의 결혼을 망설인 또 다른 이유

	부부 관계	학력	성(사랑, 불륜)	가족
남편의 인식	동반자, 협조적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대출	사랑하면 결혼	자식 중시
아내의 인식	동반자, 남편이 가사 전담할 수 있다(경제적으로 무능력할 때)	박사	불륜도 사랑이다	자식 중시

는 재하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수인 자신의 신분에 맞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주의에 비쳐지길 바란다. 그러나 남편의 사회적 무능력으로 경제력이 있는 아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반면, 남편에게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겐 자신들은 평등한 부부상이며, 이상적인 부부라고 말한다. 이는 고학력 엘리트 여성의 지닌 허위 의식과 이중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 부부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부부 관계에서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전이된 부부상을 통해, 남성이 경제력을 갖고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은 그에 종속되어 가사를 전담하는 전통적인 부부상이 해체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2) 친족 간의 갈등 구조

오랜 옛날부터 친족 간의 갈등 중 대표적인 고부간, 시누이 올케 간의 여성 간의 갈등 구조로, 이는 부부 관계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① 고부간의 갈등 구조

⑦ 삼숙 대 옥자의 갈등 구조

결혼할 때부터 아들보다 학력이나 집안이 못한 며느리가 못마땅했던 시 어머니는 전업 주부로 집안일을 해가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이나 안쓰러움

	배경	역할	가족
삼숙(며느리)	홀어머니, 고졸, 남편 과의 주종적 관계	집안일을 맡아 함	가족에 대한 사랑, 봉 사, 시댁 우선, 남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 존으로 자신의 일을 묵 묵히 함
옥자(시어머니)	학력 중시(고졸 학력 며느리 처음부터 못마 땅)	경제력 없는(직업 없 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맡는 것은 당연, 자녀 교육 우선	자신만을 가꾸는 이기 적 모습, 자식에겐 헌 신, 직업 여성인 딸들 과 전업 주부인 며느리 차별

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며느리를 은근히 무시한다. 어려서 과
외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들딸들을 바라며 자녀의 교육엔 아끼
지 않으며, 그것이 자식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했다. 아
들이 외도로 대학 교수인 지원과의 결혼을 추진하려 할 때도 적극적인 환
영의 의사를 피력하였다.

가족 내의 갈등 구조에서 빠지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은 여전히 오늘날
에도 뿐리 깊게 남아 있다. 특히 이런 고부간의 갈등이 내면적인 갈등보다
는 서로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외양적인 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우리 사
회의 제도적 모순이 가족 관계의 갈등에도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부부 관계의 유형이 고부간의 갈등 관계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즉, 부부 사이의 주종적 관계는 고부간의 관계에서도 주종적인 관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 최유미 대 금금의 갈등 구조

부유한 집안의 딸로 고학력의 엘리트 여성인 유미는 모든 면에서 뛰어
난 능력을 발휘하며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다. 경제력, 학력 등 외적 조건에서 남편과 동등하기에 시댁에 굳이 자신
을 낮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친족 관계에서 외적 조건

	배경	역할	가족
유미(며느리)	대졸, 부유한 집안, 경제적 능력 대졸	최소한의 의무 수행, 시어머니에게 당당함, 시댁보단 자신이 우선	부모보단 부부가 우선 임, 친척은 성가신 존 재일 수도 있음
금금(시어머니)	홀어머니, 경제적 독립	딸의 순종과 며느리의 당당함의 이중적 잣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며느리에게 삶은 내색을 못 함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 이 중요

(경제력, 학력)이 중요시됨을 의미한다. 또한 동등한 부부 관계는 시집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부 관계의 유형이 친족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② 올케 대 시누이의 갈등 구조

㉠ 삼숙 · 해영 · 아영의 갈등 구조

	배경	역할	가족
삼숙(올케)	고졸, 전업 주부	시누이의 집안일, 자녀 양육도 맡아줌	가족 간의 협조, 화생
해영(시누이)	대졸, 직업 여성	아쉽거나 부탁할 건 올케에게 하지만 자신보다 낮은 학력의 삼숙 무시, 전업 주부의 역할 당연시	자신이 중심(이기적)
아영(시누이)	대졸, 직업 여성	올케를 이해하려 하지 만 무지한 올케가 답답하기도 함	자신이 중심

결혼식장에서부터 고졸인 삼숙을 무시했던 시누이들은 올케인 삼숙이 집안일을 잘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득이 되므로 큰 갈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재된 그들의 인식 속에는 자신들보다 학력이 낮고 경

제적으로 무능력한 올케인 삼숙을 은근히 무시하며, 같은 여성으로서 전업 주부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삼숙 대 유미의 갈등 구조

	배경	역할	가족
유미(올케)	대졸, 경제적 능력	의무적 관계	자신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함
삼숙(시누이)	고졸, 전업 주부	올케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김	가족은 서로 힘이 되는 존재

삼숙은 아영, 해영에겐 올케이면서 유미에겐 시누이다. 그러나 그녀의 시누이들이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우월한 위치에서 올케인 유미에게 편안하게 행동을 못 한다. 자신보다 배운 것이 많고 경제력도 갖춘 올케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친족 간의 갈등 구조에서 드러난 특징은 서로 간의 갈등의 근원적 요인이 서로의 존재에 대한 불인정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학력 차, 경제적 능력 등의 차별성 등을 통해 학력 차별주의, 배금주의, 능력주의 등의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친족 간의 갈등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케가 무조건 시누이에게 시집살이를 하거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 역할이 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요컨대, 친족 간의 갈등의 원인으로서 학력 차별주의와 능력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의 적이 되는 것처럼, 다른 여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차별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남성 간의 갈등은 거의 두드러지지 않고 여성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것은 여전히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만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3) 연인 간의 갈등 구조

① 장진구 대 한지원의 갈등 구조

	성 역할	사랑	결혼(임신)
장진구	성의 고정관념	사랑하면 결혼	임신은 결혼 미혼 여성과의 결혼 가능
한지원	성 역할 변이	사랑하면 결혼 유부남과의 사랑 가능	임신은 결혼 유부남과의 결혼 가능

유부남인 장진구와 미혼인 한지원은 친구 사이로 시작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결혼 직전까지 갔으나, 서로의 이기적인 자기애와 위선적인 이중성을 알게 되면서 결국 파국을 맞는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정확히 모른 채 사랑이란 미명 아래 서로가 만들어놓은 세계로 빠지는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망각한 환상적인 사랑이었기에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유부남과 미혼의 여성의 결혼하기까진 아직도 우리 사회 제도의 많은 제약과 편견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관념적 차이다. 장진구는 전통적 가부장적 성 역할의 관념을 가진 데 반해, 한지원은 새로운 성 역할의 변화된 관념을 가졌기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

남녀 간의 문제에서 가치관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우리 사회의 남성들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기에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여성에 강요된 순결 이데올로기가 만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오일권(교수) 대 서현우(조교)의 갈등 구조

	성 역할	사랑	결혼(임신)
오일권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적, 능동적	사랑은 아내 이외의 여자와도 할 수 있다	불륜(결혼 외의 사랑)이 결혼을 파괴할 수 없다
서현우	적극적	유부남과도 사랑할 수 있다	결혼 전 혼전 관계 가능(사랑이 전제), 사랑하면 결혼해야 한다

유부남과 미혼 여성의 사랑이란 점에서는 친구와 지원의 관계와 같지만 이들은 육체적 사랑을 통한 불륜 관계였다. 일권은 불륜적 사랑은 즐기지만 가정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에게 가정은 사회적 지위를 굳혀주는 하나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혼 여성은 사랑을 결혼으로 연관 지으려 한다.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사랑, 결혼에 대한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은 사랑 없이도 성적 관계를 가지며 사랑한다고 반드시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여성은 사랑이 바탕이 된 성적 관계와 결혼으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남성들의 '이기적 사랑'과 여성의 '낭만적 사랑'의 대립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부남과 미혼녀의 육체 관계는 사회적으로 많이 개방되고 성적으로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혼녀에겐 많은 사회적 불이익이 잠재하고 있다. 이것은 미혼남과 미혼녀의 결합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③ 지원 대 재하의 갈등 구조

	성 역할	사랑	결혼(임신)
지원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다가와야 한다	정신적 사랑, 육체적 사랑	혼전 관계 가능, 임신은 결혼
재하	남성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혼전 관계 가능	육체적 사랑을 통한 정신적 결합	임신은 결혼

고학력 지식인층인 여성이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는 남성이 좀 더 적극 적이고 우월적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임신으로 원하지 않던 결혼을 하게 된다. 남성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기엔 아직 많은 사회적 제약이 있다는 점, 자식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혼전 성 관계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에 관한 담론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성에 대해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제도나 규제가 여성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된다.

이는 역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순결 이데올로기,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 결혼 이데올로기 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④ 삼숙 대 봉환의 갈등 구조

	성 역할	사랑	결혼(임신)
삼숙	평등한 성 역할	이혼 후에도 다른 남자와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란 믿음이다	사랑한다고 반드시 결혼하진 않는다
봉환	평등한 성 역할	이혼녀와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란 서로의 위안이 되는 존재다	사랑하면 결혼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학문적 동지로서 같은 학원을 다니며 신뢰감을 바탕으로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만 드라마상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만 그려졌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녀와 미혼남의 사랑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이혼 당사자인 남성은 처녀 장가를 가도 이혼녀가 총각과 결혼한다는 것이 아직은 보편적인 일이 아닌 것이다. 이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가치관이 사회

기저에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

(4) 교수 집단 간의 갈등 구조

	역할, 지위	사회적 시각
국내파(장진구)	시간 강사로 전전함	능력이 떨어짐
국외파(오일권, 한지원, 강수완)	전임 교수 등 확고한 위치	우수한 능력

교수 집단 내에서의 갈등 구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주의를 파악할 수 있다. 배움의 요람이고 학문을 위해 정진해야 할 학교 사회가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들을 지니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학력 차별주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교수라도 학위를 국내에서 획득하였는지, 아니면 해외의 유수 대학에서 획득하였는지에 따라 자질과 능력이 평가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해서 교수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학계의 거목이나 주류에 속해야 또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계에서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며, 부정한 일이 있어도 방패막이와 울타리로서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순수한 배움터여야 할 학교마저도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제도적 모순이 잠재하고 있고, 사회적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엘리트 집단인 교수 사회에서도 학벌주의, 연고주의, 능력 지상주의 등의 부정적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 계열체 분석

1) 남성과 여성의 배역들의 성격 및 특성 비교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남성은 능력 있고, 이성적이며, 너그럽고, 합리적인 성격을 소유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다. 반면, 드라마 「아줌마」

〈표 1〉 여성과 남성 배역의 특성과 이데올로기

여성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 능력 소유 * 이성적 * 합리적 * 모성애 * 적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현실적 * 경제적 무능력 * 비이성적 * 비합리적 * 부성애 *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주의 * 결혼 중시 * 가족 중시 * 학벌주의 * 능력주의 * 주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성주의 * 성공주의 * 가족 중시 * 학벌주의 * 능력주의 * 가부장주의 * 이중성
** 변화된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여성의 역할 모델을 제시함	** 가부장적 남성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남성의 역할 모델을 제시함
<p>***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의 변화, 성 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를 보여줌. 성 역할 이데올로기 변화</p>	

에서 남성의 이미지는 이기적이고, 권위적이며, 위선적인, 이중성을 띤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된 점이 이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와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이미지로 묘사되어 남성의 편협한 이중성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뚜렷이 대비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대중 매체 속에서 지금껏 묘사된 여성의 이미지와는 많은 변화를 보인다. 사회적 능력과 참여도 등에서 남성에게 뒤지지 않는 여성의 사회 활동 영역이 넓어진 점 등을 통해, 다소 미비하긴 하지만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격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성격이

대체적으로 이항 대립을 보이며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 이중성을 띠는 남성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고, 모성애적인 여성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드라마 「아줌마」에서는 변화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역할을 통해 새로운 여성의 성 역할 모델을 제시하며, 남성의 변화된 지위와 역할을 통해 새로운 남성의 성 역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 남편과 아내의 성격 및 직업 비교 분석

(1) 남편과 아내의 성격 · 특성 변화와 성 역할 변화

아내는 이성적 · 합리적 · 현실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반면 남편은 가부장적 · 권위적 · 이기적인, 자기애가 강한 이미지로 묘사됨으로써 가족 관계에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의 역할이 보다 더 확대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회의 변화로 아내의 역할과 지위가 상당히 변한 반면, 남편은 아직도 가부장적 전통을 지님으로써 변화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식애가 강하게 드러남으로써 가정에서의 자식이 부부나 가족 관계에 있어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부부 관계에서도 사회적 능력이 서로 간의 역할에 있어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남편과 아내의 성격·특성 변화와 성역할 변화

남편 배역	성격 및 특성	아내 배역	성격 및 특성
장진구	위선적 가부장적 경제적 무능력 책임 회피 이기적 자식애 결단력 결여 이중성	오삼숙	솔직함 화생적 경제적 능력 책임감 강함 이타적 자식애 결단력 현실적
오일권	권위적 가부장적 이성적 경제적 능력 뛰어남 이기적 자식애 이중성 출세 지향적	최유미	합리적 이성적 경제적 능력이 뛰어남 이기적 자식애 성공 중시
박재하	감상적 수다스러움 무능력 자식애	한지원	감상적 합리적 이기적 능력 소유 자식애
장기백	권위적 가부장적 자식애 허위적 퇴직 후 무능력	신옥자	이기적 편협 자식애 강함
윤정수	합리적 사회적 능력 소유 자식애	장해영	합리적 이성적 능력 소유 자식애
강수완	이성적 합리적 개방적 능력 뛰어남 자식애	장아영	이성적 합리적 개방적 능력 소유 자식애



(2) 남편과 아내의 직업과 역할 변화와 이데올로기적 의미

남편과 아내의 직업과 역할의 비교를 통해 이전에 비해 여성의 역할이 크게 향상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아내들이 대부분 사회에 참여하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편과의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 있음으로써 부부 관계나 가정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남편이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부부나 가족 관계에서 남편의 영향력이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남성 우월적인 가장으로서의 절대 권한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 저변에 깔린 성공주의·능력주의·출

세주의의 인식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배금주의가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지위의 향상으로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적 위치로 전이되고 있음도 보여지고 있다.

3) 고학력과 저학력 간의 비교 분석

학력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대졸 이상으로, 이것은 소위 지식인층, 엘리트층에 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런데 드라마 「아줌마」에서는 저학력자를 자신의 삶에 충실히 책임을 다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로 묘사한 반면, 고학력자들은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며 부와 명예를 차지하려는 속물 근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드라마를 통해 고학력자의 이중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 드라마 「아줌마」에서 표출된 사회 갈등과 그러한 갈등을 조장한 이데올로기들의 투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는 학력, 경제적 능력의 외적 조건이 부부·친족·연인·계층 간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력주의·능력주의·성공주의라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와 사회 진출을 통한 경제적 독립으로 기존의 남성 중심과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성 역할 이데올로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그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주체성 확립이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게 되고, 결혼 의식의 변화(새로운 가족 문제 해결법 제시, 다양한 결혼 형태, 이혼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와 성 역할의 새로운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과 그것이 지닌 의미들이 〈표 3〉에서 잘 제시되고 있다.

〈표 3〉 드라마 「아줌마」의 갈등, 신화, 의미의 총체적 연계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드라마 「아줌마」에서는 많은 신화들 사이에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갈등은 기존의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남녀 성 평등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갈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교묘하게 드라마 속에 내재되어 과연 어느 것이 중심 이데올로기인지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다. 에피소드별 내용을 보면 기존 신화와는 차이가 많은 새로운 신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드라마의 서사 구조를 보면 여전히 기존의 신화들을 근간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서사 구조들의 구조상 어느 것이 과연 이 드라마의 진정한 의미인지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여러 신화들이 하나의 드라마 속에 혼재되어 있어 복잡한 의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드라마 「아줌마」는 우리 사회에 많은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사회의 반향도 켰던 드라마이다. 그런데 내면에는 여전히 기존의 신화와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제시되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물론 그 변화의 폭과 정도가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새로운 드라마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음도 사실이다.

참고 문헌

김미현(1996),『한국 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김인식(1995),『문화와 기호』, 기호학 연구 제1집.

김웅숙(1995), 「텔레비전 드라마「종합 병원」의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제7호.

박숙자 · 손승영 · 조명덕 · 조은 편역(1995), 『가족과 성의 사회학』, 사회비평사.

박정순 · 김훈순 편(1997), 『대중 매체와 성의 상징 질서』, 나남.

박정순(1995), 『대중 매체의 기호학』, 나남.

백선기(1998), 『언론 보도와 신화적 인식』, 커뮤니케이션북스.

———(1995),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오명환(1994),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나남.

원용진(1996), 『대중 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원용진 · 한은경 · 강준만 엮음(1993), 『대중 매체와 페미니즘』, 한나래.

정준용(1997), 「「애인」, 30대, 1990년대」, 『애인: TV 드라마, 문화 그리고 사회』, 한나래.

정재철 편저(1998), 『문화 연구 이론』, 한나래.

한국가족학회 편(1994), 『현대 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Conflicts and Ideological Meanings in Korean Television Drama

—A Semiotic Approach on Drama 'A-Jum-Ma' of MBC

Seon-Gi Baek & Seung-Hee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conflicts would be represented and what kinds of ways of resolving them would be suggested in television dramas. And it also concerns what kinds of ideological meanings such kinds of conflicts and resolutions would implicate in the Korean society.

For this investigation, the authors selected a very popular drama and analyzed it on the basis of thre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how to represent various struggles and conflicts among couples, families, lovers, friends, colleagues, professors, etc.' 'what are ideological meanings of these struggles and conflicts' 'what kinds of implications the drama would bring out in Korean society' etc.

In order to answer each of these research questions, the authors selected a drama titled as 'A-Jum-Ma(Aunt in English)' which was very popular from Sept. of 2000 to Mar. of 2001, and analyzed 54 episodes among whole of the drama. They analyzed each of episodes with semiotic research methods: 'syntagmatic' 'paradigmatic' and mythical

research methods.

As results of this study, 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a lot of struggles and conflicts in the drama; for example, 'husbands vs. wives' 'mothers-in-law vs. daughters-in-law' 'higher-educated people vs. lower-educated people' 'rich people vs. poor people' etc. Secondly, it is very an interesting point as well as a controversial point that this drama represents and suggests a sort of new different direction in such kinds of struggles and conflicts, comparing with the prevalent trend in Korean society. For example, the middle-aged women normally called as 'A-Jum-Ma' in Korean language began to counter against their husbands' bad behaviors, and asked for divorce and got out of their homes. They also had no reluctance of looking for another love affairs. This kind of attitude was a newly represented one, comparing with the old one that they normally tended to keep their homes very firmly even though their husbands behaved very negatively. Thirdly, in this drama, lower-educated people were represented more honestly and good-mannerly than higher-educated people. Fourthly, rich people with higher professionalism were portrayed more negatively than poor people with low professionalism.

Likewise, this drama represented sort of new directions as well as reverse direction, in specific cases, of struggles and conflicts in Korean normal lives. It means that this drama tried to show and suggest new ways of lives in Korea society. In short, in spite of serious and furious counter-attacks, this drama tried to challenge the predominant mythical perceptions in the society and suggest new mythical perceptions.

열쇠어: 아줌마, 텔레비전 드라마, 갈등, 이데올로기, 신화.